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KB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KB 한일 통신통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한일 통신통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한일 통신통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AO023)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4. 판 매 회 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5. 작 성 기 준 일: 2015년 12월 22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6년 01월 08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주식부문에의 투자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주식에 대한 롱숏(long short)전략을 주된 투자전략의 하나로 활용하여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도한 주식(주가지수선물 포함)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매수)과 숏(매도) 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매수)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롱숏전략 수행에 따른 비용(예기치 못한 비용 포함), 차입 매도한 주식의 상환청구, 주식차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한 경우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모투자신탁은 **한일 주식간의 통신통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여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면서 양국의 저평가 주식 투자 및 국내 채권투자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통화 관련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상세설명
KB 한일 통신통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9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간 주식 통신통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여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면서 양국의 저평가 주식 및 국내 채권투자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신탁재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화표시 자산에의 투자 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외화표시 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음 - 국내외주식 70%이하, 채권(신용평가등급 AA-이상) 50% 미만, 파생상품(위험평가액 기준) 10% 초과 투자 가능

※ 위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KIS 국고채 1~2년 지수*80% + KOSPI 지수*10% + NIKKEI225 지수*10%

▪ 정의

- KIS 국고채 1~2년 지수: KIS채권평가에서 제공하는 채권지수를 이용하여 KB자산운용(주)에서 자체 생성한 채권지수로서 만기가 1년~2년 남은 국채의 지수를 이용해 생성한 지수임
- KOSPI 지수: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수임
- NIKKEI225지수: 일본경제신문사가 도쿄증권거래소 1부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대표적인 225개 종목의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

▪ 선정사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과 일본주식에 대한 통신통 전략을 기본으로 하면서 양국의 저평가 주식에의 투자를 병행하여 순 주식 편입비율을 10~30%수준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산은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운용 전략에 맞게 비교지수를 KIS 국고채 1~2년 지수를 80%, KOSPI지수를 10%, NIKKEI225지수를 10%로 선정하였습니다.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KB 한일 롱숏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한일 롱숏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투자전략

(1) 투자전략: 한일 주식간 롱숏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면서 양국의 저평가 주식 및 국내채권 투자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일본 롱숏 주식의 선정 및 저평가 장기투자 주식 군 선정은 일본 현지 자산운용회사인 DIAM Co., LTD.(이하 “DIAM”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운용합니다.

※ KB자산운용은 일본주식 부분 운용에 대해 일본 현지의 자산운용회사와 자문계약을 맺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KB자산운용 또는 자문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자문회사는 다른 자문회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적절한 자문회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KB자산운용이 직접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기간 또는 상당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은 당초의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되지 않게 운용될 수 있습니다.

Long
(매수)

▪ Long(매수)

-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매수(저평가, 성장가능성 높은 종목 등)
- 주가 상승시 이익, 주가 하락시 손실

Short
(매도)

▪ Short(매도)전략

-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차입매도(고평가,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종목 등)
- 주가 상승시 손실, 주가 하락시 이익

※ 상기 예시는 개별 주식의 가격 변동만을 적용하고 환율효과는 제외한 예시 자료입니다.

1) 주식투자전략: 기업의 가치평가 및 거시경제 분석을 통한 상대적인 업황 강도 등에 따라 다양한 롱숏 전략을 수행합니다. 추가적인 수익 획득을 위하여 저평가 주식매수 및 주가지수 선물 매도 등을 병행합니다. 일본 등 해외 주식의 숏(매도)전략은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주식스왑 등) 거래를 활용 수 있습니다.

(가) 페어 트레이딩 전략: 한국과 일본의 주식 중에서 또는 각 국가내의 개별 주식 중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움직이는 두 종목의 주가가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수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도

(나) 롱숏전략: 한국과 일본에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수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도하여 주가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롱전략, 숏전략 중 어느 한쪽 전략에서 발생한 이익이 다른 전략에서 발생한 손실보다 크면 이익 발생

(다) 변동성 관리를 통한 안정적 이익 추구

- 순 주식 편입비율을 10%~3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임. 다만, 시장 상황이 급변동하거나 매니저의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순 주식 편입비율은 일정기간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음

※ 순 주식 편입비율(Net Exposure): Long(주식매수 평가비중)에서 Short(주식 차입매도비중과 주가지수선물매도비중)을 차감한 것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의미함

- 총 주식 편입비율(Gross Exposure)를 30%~130%이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임.

다만, 시장 상황이 급변동하거나 매니저의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순 주식 편입비율은 일정기간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음

※ 총 주식 편입비율(Gross Exposure): Long(주식매수 평가비중)과 Short(주식 차입매도비중과 주가지수선물매도비중)의 절대값을 합산한 것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총 편입비를 의미함

(라) 추가 알파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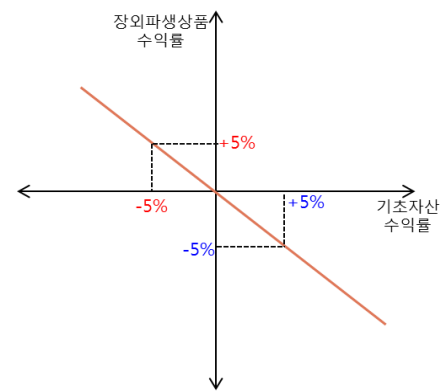
- 리서치에 기반하여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저평가 주식 매수
- 한국과 일본의 저평가 주식 매수와 병행하여 각국의 주가지수선물 매도 또는 주가지수선물매도 비중 조절 등을 통한 추가수익 획득 추구
- 다양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외상장 ETF 등을 활용하여 추가 수익 추구

(마)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주식스왑 등) 거래

- 일본 등 해외 주식의 숏(매도)전략은 거래의 안정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현물차입매도 또는 주식스왑거래 중 결정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선정

※ 일본 등 해외 주식의 숏(매도)전략 수행시 활용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우측의 예시 수익구조에는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수익구조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예시 수익구조]



*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예시수익구조임

2) 채권투자전략

(가) 유동성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국내 국공채, 특수채 및 신용등급 AA-이상의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우량 회사채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나) 채권의 가중평균잔존만기는 비교지수를 기본으로 하여 조정

3) 환헤지 전략

(가) 기본적으로 일본주식 투자에 따른 순 주식 편입비율(Net Exposure)이 10%를 초과할 경우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예정임

(나) 환헤지는 원/엔 통화선물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수행할 계획이나, 거래단위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환헤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순 주식편입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환헤지를 실행할 수도 있음

※ 비교지수: KIS 국고채 1~2년 지수*80% + KOSPI 지수*10% + NIKKEI225 지수*10%

(2)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 관리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KB 한일 통신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위험 관리전략

1) 일본 관련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일본 엔화의 통화 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의 가치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엔 관련 통화선물 및 선물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일본 엔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부분적인 환차익 또는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헤지단위 수량의 문제, 통화선물 및 선물환 거래시간과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 가치 변동 등으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3) 환헤지는 통화선물 및 선물환거래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 방안을 모색하여 환헤지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기본적으로 일본주식에 따른 순 주식 편입비율(Net Exposure)이 10%를 초과할 경우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거래단위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환헤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순 주식편입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환헤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에 관한 방법 및 장단점과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헤지 방법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최소 70%에서 최대 100% 수준까지 원/엔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헤지, 규모 및 거래단위의 차이, 주가 등 투자자산의 가격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의 장단점 및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는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투자신탁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환헤지 비용

목표 헤지비율	환헤지 비용
외화자산의 최소 70%, 최대 100%	-

주)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미설정 투자신탁이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않아 상기 환헤지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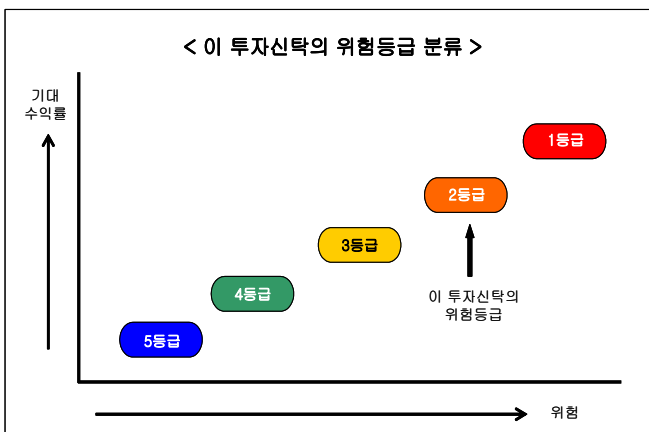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원본손실위험 등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 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선물, 선물환등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위험 제거를 추구하나, 통화선물을 활용할 경우 헤지단위 수량의 문제, 통화선물, 선물환의 거래시간과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자산가격 변동 폭과 환율의 변동폭이 클수록 이러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롱숏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부문에의 투자에 있어서 롱숏(Long Short)전략을 주된 투자전략의 하나로 활용하여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도한 주식(주가지수선물 포함)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매수)과 숏(매도)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매수)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롱숏전략 수행에 따른 비용(예기치 못한 비용 포함), 차입 매도한 주식의 상환청구, 주식 차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한 경우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수익률과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일 주식간의 롱숏전략을 이용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 KOSPI지수 및 NIKKEI225지수를 비교지수로 사용하는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수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 및 기타 차익거래 등의 알파 추구전략 등을 주요 운용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투자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 및 소수 종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시장과 크게 상이한 운용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증권 차입매도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입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 차입 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단순 매수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후 환매시 같은 증권을 매수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므로 증권차입에 따른 손실도 이론적으로 무한합니다. 또한 차입한 증권에 대하여 대여기간 중에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있을 경우 급작스러운 증권의 매입 및 상환 등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의 차입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한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차입비용 및 증권차입에 따른 담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 및 일부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 및 업종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가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일본 관련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와의 물리적, 시간적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경제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외국 국가시장의 증권은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에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송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과 일본의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채권 등에 투자하므로 주식 및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원본 손실 위험 및 환율변동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2015년 12월 22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 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정병훈	1975년	책임	7개	1,917억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팀 5년 2개월 메릴린치(홍콩) 전략투자팀 3년 2개월 하나UBS자산운용 헤지펀드팀 3년 5개월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년 3개월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국내외의 전문투자자문기관(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을 투자자문업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 및 자문 내용]

구 분	내 용
해당 투자신탁	KB 한일 통신통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투자자문업자명	DIAM Co., LTD.
업무자문범위	일본주식 부문에 대한 조사분석업무 등

[투자자문업자의 개요]

투자자문업자명	회사주소	회사개황
DIAM Co., LTD.	New Tokyo Building 5 th Floor, 3-3-1 Marunouchi, Chiyoda-ku, Tokyo Japan 전화번호: 81-3-3287-1715 홈페이지: www.diam.co.jp	주요 주주: 미즈호파이낸셜그룹 50%, 다이이치미쓰추얼라이프 보험회사 50% 최초 설립연도: 1999년 총수탁고: USD\$1,204 (2013-06-30)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기준일: 2015년 02월 14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7.65%	-	-	-	-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6.69%	-	-	-	-
비교지수	5.47%	-	-	-	-

※ 비교지수 = KIS 국고채 1~2년 지수*80% + KOSPI 지수*10% + NIKKEI225 지수*10%

※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2부.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가입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 이내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A-E	온라인 가입자	납입금액의 0.5% 이내	-		-
C	가입제한 없음	-	-		-
C2	C 클래스 1년 이상 가입자	-	-		-
C3	C2 클래스 1년 이상 가입자	-	-		-
C4	C3 클래스 1년 이상 가입자	-	-		-
C-E	온라인 가입자	-	-		-
C-F	투자신탁 및 전문투자자	-	-		-
C-F2	외국 집합투자기구	-	-		-
S	펀드판매에 한하여 인가 받은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	-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C-P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와 환매에 따른 정기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 및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자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투자신탁 총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TER)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비용
A	0.700%	0.50%	0.045%	0.015%	1.260%	－	1.260%	1.266%	0.546%
A-E	0.700%	0.25%	0.045%	0.015%	1.010%	－	1.010%	1.015%	0.363%
C	0.700%	1.40%	0.045%	0.015%	2.160%	－	2.160%	2.166%	0.578
C2	0.700%	1.10%	0.045%	0.015%	1.860%	－	1.860%	1.866%	0.449%

C3	0.700%	0.80%	0.045%	0.015%	1.560%	-	1.560%	1.560%	-
C4	0.700%	0.70%	0.045%	0.015%	1.460%	-	1.460%	1.460%	-
C-E	0.700%	0.50%	0.045%	0.015%	1.260%	-	1.260%	1.266%	0.542%
C-F	0.700%	0.03%	0.045%	0.015%	0.790%	-	0.790%	0.795%	0.358%
C-F2	0.700%	0.30%	0.045%	0.015%	1.060%	-	1.060%	1.060%	-
S	0.700%	0.25%	0.045%	0.015%	1.010%	-	1.010%	1.013%	0.237%
C-P	0.700%	0.70%	0.045%	0.015%	1.460%	-	1.460%	1.460%	-
지급 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은 합성 총보수·비용에 포함하였습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모투자신탁 투자비용에 따라 나눈 값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된 기타비용을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합산한 총 보수·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text{합성 총 보수·비용비율(모펀드 포함)} = \frac{(\text{자펀드 기타비용} + \text{모펀드 투자비용에 따른 기타비용}) + \text{자펀드 총보수}}{\text{순자산 연평균잔액}} \times 100$$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은 설정되지 않아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구분		1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 클래스	228,071원	498,287원	789,867원	1,620,997원
	A-E 클래스	153,328원	372,168원	609,500원	1,292,088원
	C 클래스	219,720원	583,228원	915,687원	1,855,232원
	C-E 클래스	129,364원	402,310원	696,836원	1,536,360원
	C-F 클래스	81,429원	254,462원	442,945원	989,318원
	C-F2 클래스	108,427원	337,910원	586,559원	1,330,549원
	S 클래스	103,644원	323,159원	561,233원	1,246,003원
	C-P 클래스	149,042원	462,587원	799,610원	1,753,646원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의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최대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분리과세)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해지가산세	해당사항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일반해지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 후
매 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납입 (3시 이전)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격 적용)</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납입 (3시 경과 후)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격 적용)</p>
환 매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청구 (3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p>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6영업일(D+5)에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청구 (3시 경과 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p>

4. 전환 절차 및 방법

- (1)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1.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
 2.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
 3.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
- (2)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3)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4) 전환이전에 추가 매수 및 환매(일부환매를 포함한다)를 청구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매수 및 환매 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5)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제3부.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기		
	(2015.02.13)		
운용자산	3,917,690,332	0	0
증권	3,909,398,643	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8,291,689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9,654,845	0	0
자산총계	3,967,345,177	0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9,752,575	0	0
부채총계	49,752,575	0	0
원본	3,594,073,858	0	0
수익조정금	-148,218,522	0	0
이익잉여금	471,737,266	0	0
자본총계	3,917,592,602	0	0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기		
	(2014.02.14 - 2015.02.13)		
운용수익	465,559,833	0	0
이자수익	213,206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465,346,627	0	0
기타수익	6,295,553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18,120	0	0
당기순이익	471,737,266	0	0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매매회전율: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함